

비장애중심주의와 칸트의 인간학

한광주*

칸트의 철학 텍스트에서 비장애중심주의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분석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비장애중심주의의 개념과 작동 양상을 탐색하여 장애운동 논의로 연결하는 발본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 칸트 철학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문헌상으로는 가장 나중에 던져진 것이긴 하지만 초기 논의와 이후 과정을 살펴볼 때 칸트 철학의 귀결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칸트는 인식의 선험적 요소인 이성 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인간을 난외(magins)의 영역으로 밀어낸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분류와 명명,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제한 명시, 감각에 충위를 매김으로써 특정 장애인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칸트의 저술을 비장애중심주의가 작동한 결과로 본다. 장애에 관한 한 칸트와 다른 입장을 보인 데카르트와, 각을 세워 그를 비판했던 푸코의 논의를 첨하여 살펴봄으로써, 자칫 당연하거나 우연적인 사안으로 치부될 수 있는 장애인 배제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하고, 비장애중심주의를 해체할 힘의 근원을 모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력이 칸트의 철학 개념 안에 있음을 알려주는 사람은 푸코이다.

주제어 : 비장애중심주의, ableism, 칸트, 인간학, 차별, 미성숙, 계몽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박사과정

I. 서론

장애운동에서 ‘이론’은 운동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줌과 동시에 장·단기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힘을 생성한다. 장애를 사회구조적 제약으로 받아들이고, 그 제약을 제거하고자 하는 장애운동과 맥을 함께 하는 장애학 역시 일정의 철학에 기반한 이론을 생성하고 발전시킨다. 그런데 그 철학에 비장애중심주의(Ableism)가 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만들어지는 이론이 비장애중심주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장애인을 비장애인에 기준한 ‘능력’으로 재단함으로써 동등한 구성원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비장애중심주의는 장애인에 대한 ‘억압’으로 작동하면서도 그 개념이나 해로움은 잘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비장애중심주의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으면서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비장애중심주의를 드러내 보이는 것은, 장애운동의 철학적,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이 글은 칸트의 인간학 텍스트에서 ‘비장애중심주의’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찾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술한 철학자 중에서 ‘칸트’가 간택된 것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철학자¹⁾이기도 하거니와, 그가 현대 사상의 흐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철학자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칸트 철학에 내재된 비장애중심주의를 읽어내는 것은, 자칫 당연하다거나 우연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배제를 확인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오늘날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배제에 대한 발본적인 작업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비장애중심주의를 중심으로 칸트를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 그나마 검색에 걸리는 국내 논문은 대부분 정신의학과 철학상담 분야²⁾인데, 이는 칸트의 정신장애 분류가 오늘날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의 시초가 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칸트의 저서 중 이 글의 주요 분석 대상이자 인용된 저서는 《실용적 관점의 인간학》(1798)과 〈두뇌의 질병들에 대한 시론³⁾〉(1764)이다. 칸트는 대학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20여 년 동안 ‘인간학’을 강의했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단행본 《실용적 관점의 인간학》⁴⁾을 펴냈다. 인간학 강의

1) 백종현(2004)이 1915년부터 95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학위 논문과 서양철학 논저 7,245건을 조사한 결과 칸트 연구가 591편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권오상(2015). 칸트의 정신병리론과 철학상담의 가능성 모색. 인문연구 : 송지영(2011). 정신장애 진단 분류체계의 변천. 정신병리학 : 조영탁, 주연호(2021).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 조현병 진단 개념의 변천 : 차훈진(2014).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DSM) 의변천과정 고찰. 한국범죄심리연구 : Frierson, P. (2009a). Kant on mental disorder. Part 1: An overview. History of Psychiatry 등.

3) 원제: Versuch über die Krankheiten des Kopfes/Versuch über die Krankheiten des Kopfes

4) 초판본 서지 정보: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abgefaßt von Immanuel Kant.

를 시작한 초기인 1773년에 칸트가 제자 헤르츠(M. Herz)에게 보낸 편지에는 ‘인간학을 본격적인 학문 분야로 만들 생각’(홍우람, 2021)이 잘 드러나 있다. 인간학을 하는 목적에 관해서도 ‘모든 학문의 원천’, ‘도덕과 숙련, 교제, 그리고 인간을 교육하고 통제하는 방법의 원천, 그러므로 모든 실천적인 것의 원천을 밝히는 것’(홍우람, 2021)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신체 기관이 사유와 결합되는 방식에 관한 ‘미묘한 연구’는 ‘영원히 무익한 것으로 완전히 제외된다’(홍우람, 2021)면서 기존의 인간학과는 선을 그었다. 게다가 이와 유사한 입장에 선 학자들의 연구를 ‘무익한 주제’ ‘억측’ ‘순전한 구경꾼의 자세’ ‘완전히 헛수고’ 등의 표현으로 비판한다.

《실용적 관점의 인간학》머리말에서 칸트는 “이 세계에서 인간이 지식과 숙련을 발휘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인간”이라면서 인간학에 대해 “세계지라 불릴 만하다”(VII, 119)고 언급했다. 이어 ‘생리적 인간지’와 ‘실용적 인간지’를 구분하면서, “자연이 인간으로 무엇을 이루어내는데 대한 탐구”와 “자유로운 행위자인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내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 낼 수 있으며 무엇을 이루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탐구”(VII, 119)로 각각을 설명했다.⁵⁾ 인간학 강의의 구체적인 목적에 관해서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보기에 대단히 흥미로운 이 관찰연구로 숙련과 영리함 그리고 심지어 지혜에 대한 예행연습’이라고 설명했는데, 〈인간의 상이한 종〉(Von den verschiedenen Racen der Menschen)(1777)에도 같은 내용이 언급된 점을 감안할 때, 칸트가 인간학에서 ‘실용적’이라는 개념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실용적’이라는 말은 ‘실천적’과 구분되는데, 칸트에게 ‘실천적’이라는 개념은 인간 행위의 원인이 되는 ‘의지의 규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성을 ‘실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독립해서 의지를 규정’하는 것, 경험법칙이 아니라 이성의 법칙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병권(2023)에 의하면 이러한 구분은 《도덕형이상학정초》의 용어 구분에도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저작에서 칸트는 어떤 행위에 대한 명령을 ‘기술적’인 것, ‘실용적’인 것, ‘도덕적’인 것 등으로 구분한다. ‘기술적’인 것이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지시하는 명령이라면, ‘실용적’인 것은 모든 인간들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목적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명령이고, ‘도덕적’인 것은 어떤 별개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행위, “자신의 현존의 목적에 알맞는 인간이 되는” “도덕적-실천적 이성의 지시명령”(IV, 416-417)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우람(2023)은 ‘실용적 관점의 인간학이란 도덕에 관한 인간학이 아니라 행복에 관한 인간학’이며, ‘도덕적 명령의 경험적 적용을 모색하는 도덕적 인간학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Königsberg bey Friedrich Nicolovius.1798. XIV und 334 Seiten.

5) 본고의 중심 텍스트인 《실용적 관점의 인간학》은 국내 번역본(홍우람, 2021: 백종현, 2014)을 참고하였으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칸트 저작에 대한 인용 표기는 베를린학술원판본(Die Akademieausgabe)의 권수와 쪽수를 적었다.

고병권(2023)은《실용적 관점의 인간학》제2편에서 칸트가 문명화 단계로서 ‘시민정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인간의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도 ‘기술적’인 것, ‘실용적’인 것, ‘도덕적’인 것은 구분되지만, 하나의 ‘이행’ 속에서 사고된다는 점을 들어 칸트의 인간학을 도덕적인 명령과 무관한 행복에 관한 책으로 보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행’의 관점 보여주는 텍스트로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1784)을 들었는데, 여기서 ‘주어진 인간’은 ‘짐승들처럼 단순히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전적으로 이성적인 세계시민과 같이 보편적으로 약정된 계획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는’ 인간이다.

〈비장애인중심주의와 계약〉⁶⁾에서의 논의를 빌자면, Loudon(2000)은 ‘모든 인격체 목적 자체라는 칸트의 주장은 순수철학의 두드러진 특징’임을 들어, 그의 이론에서 이성적 주체를 ‘인간’이라고 한정함에 따라 인간 존재의 종적인 특징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순수윤리학은 이성적 존재 일반에 적용되고 비순수윤리학은 특별히 인간에게 적용된다고 본다면, 그의 이론에서는 이성적 주체를 ‘인간이라고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Pinheiro(2013)는 “칸트가 그의 경험론적 저술에서 정의의 주체를 이성적 존재에서 인간 존재로 전환한 것은, 칸트의 인간 존재에 대한 정의의 한도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이론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효과가 있다”⁷⁾고 주장한다. 이는 칸트가 순수도덕철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성적 능력이 있는 존재를 그 대상으로 하다가 이를 ‘인간’이라는 개념에 밀어넣음으로써 ‘인간’의 범주에 ‘이성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정신장애인을 논의의 공간으로 밀어낸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칸트의 도덕 철학에서 정의론, 계약론, 경험론에 이르는 일련의 철학 체계에 일정한 난외(margins)가 있다는 것을 말하며, 푸코 식으로 말하자면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이 있고 이들이 바로 정신장애인이라는 말이다. McCarthy(2010)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칸트의 입장은 순수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칸트의 경험론적 텍스트에서 여성, 비백인, 장애인의 주변화가 그의 실천 철학의 논변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만 칸트 사상이 담긴 배제의 진의가 드러난다’고 했다.⁸⁾ 이러한 내용은《실용적 관점의 인간학》에서 “어떤 기관 감각이 가장 보람이 없는가? 어떤 기관 감각이 가장 없이 지낼 만한 것으로 보이는가?”(VII, 158)라며 감각을 서열화하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제를 정당화

6) Pinheiro(2013). 비장애인중심주의와 계약. Barbara Arneil & Nancy J. Hirschmann. 장애의 정치학을 위하여(김도현 역). 후마니타스.

7) Barbara Arneil, Nancy J. Hirschmann(2016). 장애의 정치학을 위하여(김도현 역). 서울: 후마니타스. p.123

8) McCarthy, T(2010), Race, Empire, and The Idea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하는 한편, <두뇌의 질병들에 대한 시론>에서 정신장애의 등급화함으로써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마땅히 배제될 수 있는지 말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칸트의 인간학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미셸 푸코의 저서 《말과 사물》에 따르면, 근대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인간’이라는 개념이 지식의 영역으로 들어왔으며, 이러한 에피스테메의 근본적인 변화 즉 ‘근대성으로 넘어오는 문턱의 표지’에 해당하는 것이 칸트 철학이다. 특히 인간학은 ‘칸트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철학적 사유를 지배하고 이끌어온 기본적인 경향’이라고 한 바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칸트가 던진 인간에 대한 물음이 유효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칸트의 인간학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대의 인간학이기도 하다. 푸코는 1961년에 국가박사학위 논문으로 <광기의 역사>를 제출하면서, 부논문으로 칸트의《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을 불어로 번역하고 서설과 해설을 담아 제출한다. 그런데 이 논문의 서설이 무려 128쪽이나 되는 분량으로, 푸코 사후에 《칸트의 인간학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후 1984년도에 푸코는 칸트의 계몽과 비판 개념을 재해석한 《계몽이란 무엇인가(Qu'est-ce que les Lumières?)》를 출간한다. 결국 푸코 철학의 처음과 끝에 칸트가 있었다고 본다면, 칸트의 인간학을 읽어나가는 데 푸코를 도입하는 일은, 칸트 시대의 비장애중심주의를 지금, 오늘날의 문제로 사유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장애중심주의의 개념과 양상, 그리고 작동 원리를 알아보고, 칸트의 저작에서 비장애중심주의적인 내용을 찾아서 정리하는 한편, ‘이성’과 ‘인간’에 대한 칸트의 개념을 푸코가 어떻게 해체하고 재정의하였는지 알아봄으로써 오늘날 직면한 비장애중심주의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 그 경로 탐색의 계기가 되고자 한다.

II. 비장애중심주의(Ableism)

1. ‘ableism’ = 비장애인중심주의; 번역의 문제

논의에 앞서 ‘ableism’을 ‘비장애중심주의’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장애중심주의(ableism)’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편견’으로 ‘장애로 정의되는 사람들을 특징짓고 또한 장애인을 비장애인보다 열등한 사람으로 분류’한다(Wikipedia, 2023). ‘비장애중심주의’의 영어 표기인 ‘ableism’은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 ‘able’에 ‘무슨무슨 주의’를 나타내는 ‘-ism’을 합한 말로, 그 본래 의미만의 조합으로는 ‘능력주의’로 번역되는바 - 실제로 국내 몇몇 번역기에서 ‘능력주의’로 번역되기도 한다 - 우리말 ‘비

장애중심주의'와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ableism'을 우리만 '비장애중심주의'로 바꿔 쓰는 것은 언어적 의미보다는 영어권에서의 쓰임새를 우리말로 재구성한 결과이다.⁹⁾ 장애학이 활성화되던 1990년대 장애 관련 많은 용어들이 새롭게 탄생하고 재정의되기 시작하면서 'ableism'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박승희, 2023). 《장애의 역사》¹⁰⁾를 번역한 김승섭(2022)도 'ableism'을 고민 끝에 '비장애중심주의'로 번역했다고 말하면서 '장애인의 삶을 중심에 두고 그들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서술하려 했던 저자 닐슨의 집필 의도를 생각하면,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고민의 과정을 서술했다. 앞서 인용한 Wikipedia에서 '-able'은 'disable'나 'disabled'에서 쓰이는 것을 가져왔고, '-ism'은 'racism'이나 'sexism'에서 쓰이는 것을 가지고 왔음을 밝힌¹¹⁾ 점은 그 의미를 잘 전달한다. 번역어에 천착한 용어에 대한 논의가 자칫 소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학제적인 학술용어로 자주 등장하는 'ableism'을 '비장애중심주의'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의는 있을 수 있으나 무리는 없어 보인다.

한편, 장애주의로 번역되는 'disablism'은, 부정의 뜻을 담은 'dis'라는 전치사에 'ableism'이 합한 것이거나, 장애를 뜻하는 'disable'에 '-ism'이 붙은 것으로, 각 형태소의 의미만으로만 보면 'ableism'과 반대의 의미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둘 다 장애 차별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두 용어를 굳이 구분하자면, '차별을 하는 입장'과 '차별을 받는 입장'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disablism'이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편견과 그로 인한 사회 문화 제도 때문에 차별받는 장애인 당사자의 사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ableism'은 비장애인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비하거나 판단할 때 장애인을 염두에 두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2. 비장애중심주의와 능력주의

능력주의(meritocracy)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부 권력 등의 이익이 주어지는 하나의 사회 체제로 경제적 자유주의와 연관이 있다. 개인이 '직업'이나 '직업을 얻을 기회'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배분된다는 믿음이기도 하다. Sandel(2020)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이런 믿음이 허구임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으로 스스로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공

9) Tobin Siebers의 저서 《장애이론》(2019. 학지사)의 주 번역자인 조한진은 'ableism'을 '능력주의'로 번역했다.

10) Kim E. Nielsen(2012). 장애의 역사(김승섭 역). 동아시아

11) "Originating from -able (in disable, disabled) and -ism (in racism, sexism); first recorded in 1981"(Wikipedia. 2023)

평한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믿으나, 이는 ‘능력주의 사회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오는 오만이라는 것이다. ‘능력주의는 재능의 우연성을 외면하고 노력을 과장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지 않으며, 능력주의는 승자에게는 자만을, 패자에게는 분노를 주므로 공동선을 해치기도 한다’는 것이 Sandel의 주장이다.

이러한 논의가 장애인의 능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능력주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정한 영역이 남는다. 여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배제가 실제로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능력 없는 것으로 보는’ 편견이나, 비장애인이 당연하게 누리는 시설이나 문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데서 오는 불공정함, 그리고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일정한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 이를 장애인에게 들이대는 등의 차별이 자리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이 2022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신체능력’을 이유로 장애인을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힌 일은 이러한 비장애중심주의가 작동한 결과이다. 인간의 신체는 개인마다 다르고 그에 따라 각자의 쓰임새대로 쓰이게 마련인데, 비장애중심적인 관점에서는 ‘정상화’에서 벗어난 신체가 춤을 추는 것을 금한다. 홍혜전(2023)은 ‘본디 춤은 몸의 상태를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춤이 특별히 훈련된 사람의 전유물이 된 것은 모더니즘이 주류가 되면서부터’라고 설명한다. ‘모던 댄스가 움직임 자체를 탐구해 형식적인 순수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무대는 그들만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영역이 되었다’는 것이다. 무용이론가 Sally Banes는 누구나 언제든지 춤출 수 있다면서 ‘민주적인 몸’을 제시했다. 무용가 Yvonne Rainer는 현대무용 작품 〈Trio A〉에서 어떤 움직임이든 춤이 될 수 있다는 움직임의 ‘평등’을 현시한다. 연출가 라시내(2023)는 예술 분야에서 장애와 비장애 구분 자체를 문제 삼는다. 이러한 구분을 없애는 것로부터 장애예술 개념이 출발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장애예술은 비장애인이 춤출 때 장애무용수가 주변적 역할로 등장하여 ‘인간승리’나 ‘기적’을 보여주는 역할로 전락하게 되는 점을 우려한다. 라시내는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춤이 되는 움직임과 그렇지 않은 움직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장애가 없는 몸’을 전제로 할 필요가 없음은 당연하다.

능력 이데올로기(ideology of ability)는 “인간다움이 결정되는 기준선을 정의하고, 인간에게 지위를 주거나 인간의 지위를 빼앗을 수 있는 신체, 정신의 척도를 규정”(Siebers 2019. p.23) 하여, 일정한 사람에 대한 배제를 정당화한다. 이는 장애인 정체성과 관련된 것으로, ‘어떤 능력을 갖거나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Taylor, 2018)에 더 나아가 ‘가정된 능력을 근거로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간주된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적 혹은 부당한 처우를 조장하는 일련의 가정과 행위’(Campbell, 2009)이다. 특정 사람들의 천부적 우월성과 타인의 천부적 열등함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비장애중심주의는 비장애인의 장애가 없는 몸(able-bodied)이나 장애가 없는 마음(able-minded)이 장애나 손상을 지닌 것보다 본질적으로 낫다는 믿음을 나타낸

다(박승희, 2023). 능력주의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 능력은 누구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며, 반드시 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가정의 근거는 무엇이며, 장애인의 특수성을 무화하고 그것을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능력주의를 넘어서는 비장애중심주의적 사고에 대한 비판에 들어갈 때 보완된다. 능력주의 자체도 문제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원인에는 비장애중심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때, 비장애중심주의는 능력주의를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1〉 삭제 ‘비장애중심주의’라는 렌즈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볼 때 장애 차별은 더욱 명료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의 철학, 그 중에서 인간학에 담긴 비장애중심주의를 찾아내는 일은, 장애 억압의 원인을 아주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찾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3. 비장애중심주의에 의한 차별

비장애중심주의는 우리가 사는 세상 도처에서 시시각각으로 두드러지게, 때로는 먼지처럼 작은 틈새에 자리하며 장애 차별로 작동한다. 장애운동가이자 동물학자인 Sunaura Taylor의 저작 《짐을 끄는 짐승》에는 절뚝이는 걸음걸이에 병들어 보이는 여우를 사살한 캐나다 주민 이야기가 나온다. 연구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 여우는 ‘관절굽음증’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근육도 적당히 발달해 있었고, 뱃속에는 소화된 음식이 가득 들어 있는 것”(Taylor. 2020 p.68)으로 보아 사냥하고 먹이를 구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테일러는 주민이 여우를 죽인 이유에 대해, ‘연민의 마음’에서 일종의 안락사를 했거나, 여우가 어떤 전염병에 걸렸을 것이라는 ‘공포’를 느껴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여우와 같은 장애를 가진 Taylor는 “해당 주민은 여우의 삶의 질이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만큼 낮다고 생각한 것”인지, “동물의 장애를 위협한 것으로, 혹은 죽을 게 더 나은 정도로 불행한 운명으로 간주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연민’과 ‘파괴’로 갖추어진 “인간의 비장애중심주의가 여우에 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Taylor. 2020 p.69).

‘허용되는 편견(Permissible Prejudice)’이라는 Chodorow(1999)의 말은 비장애중심주의의 특성을 잘 표현한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살기’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은 비장애중심주의로 인한 차별에 대한 저항이다. 대중교통의 디자인과 편의성은 점점 높아지지만 정작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은 나아지지 않는다는가,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등의 경우처럼 비장애중심주의가 눈에 띄게 작동하는 경우 장애운동의 저항을 받는다. 하지만 비장애중심주의가 미세한 차별(microaggression)¹²⁾로 나타날 때는, 이로 인한 피해만 결과로 남을 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모호해진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기 쉬운 조건이 된다. 미세한 차별은 주로 일상

에 밀착되어 있어서 차별을 하는 사람이나 차별을 받는 사람이나 인식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다. 이런 일들이 마치 먼지처럼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장애인은 부정적인 존재로 드러나게 된다. 또한 미세한 차별은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놓고 하는 혐오 발언과는 다른 경우도 있다. 장애인에게 ‘얼굴이 아깝다’느니, ‘장애인처럼 보이지 않는다’느니, ‘장애인 치고 잘 한다’는 등의 말이나, 묻지도 않고 식사비를 대신 내주는 등의 행위는 악의적인 행동은 아닐지라도 분명 차별적인 언행이다. 이러한 차별은 꼭 말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일상에서의 시선, 머뭇거림, 표정 등 아주 작은 행동에서도 차별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비장애중심주의적인 사안에 대한 무감각이다. Siebers(2021)는 ‘장애를 시민권 문제로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은 우리의 세상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갖추어진 세상에서 장애인이 삶의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일을 ‘무리한 일’로 규정한다면 이는 비장애중심주의에 경도되었기 때문이다.

Pinheiro(2013)는 비장애중심주의를 배제의 세 번째 사례로 본다. 그 첫 번째는 ‘남성중심주의’로 여성을 배제해 왔으며, 두 번째는 ‘백인중심주의’로 비백인을 배제해 왔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배제가 바로 ‘비장애중심주의’로 장애인에 대한 배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Pinheiro는 <비장애인중심주의와 계약>에서 ‘비장애중심주의 개념을 가지고 칸트의 사상을 분석하는 것은, 칸트 철학에 섞여 능력중심적 사고와 일정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어떤 부류의 인간들을 어떻게 배제해 왔는지를 알아내는 데 꼭 필요’한 일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전 주변화의 서구 정치사상의 역사에서 정의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관념들 가운데 상당 부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Michelle과 Redmond(2019)는《비장애주의: 장애 편견의 원인과 결과》에서 ‘장애 차별과 편견으로 정의되는 능력주의에 대한 연구가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성차별과 비교할 때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비장애중심주의를 유발하는 조건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12) ‘작은’이라는 뜻의 micro와 ‘공격’을 뜻하는 aggression의 합성어로 유색인종, 장애인, 성 소수자 등 소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하는 일상 속의 질문이나 평가, 행동을 이르는 말. 1970년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의사 Chester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가하는 모욕과 해고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다. 심리학자 Sue는 미세한 차별을 ‘집단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특정 개인에게 폄하 메시지를 보내는 짧고 일상적인 교환’으로 정의한다.

Ⅲ. 칸트의 인간학에서 타자로서의 장애인

1. 칸트 인간학에서 장애인의 위상

칸트는 그의 저작인 《순수이성비판》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나의 이성의 모든 관심(즉 사변적 관심 및 실천적 관심)은 다음의 세 물음으로 통합된다.

첫째,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둘째,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셋째,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후 《논리학》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네 번째 질문이 추가된다. 이에 대해 칸트는 “첫 번째 물음은 형이상학이, 두 번째 물음은 도덕이, 세 번째 물음은 종교가, 그리고 네 번째 물음은 인간학이 답한다. 그러나 근거에서 볼 때 이 모든 것들은 인간학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세 가지 물음은 마지막 물음에 관계하기 때문이다.”(IX, 25)라고 말한 바 있다. 앞의 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의 관계에 대해서는 칸트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강영안(2014)의 연구에 의하면, 먼저 칸트의 인간학을 ‘경험 심리학의 연장선’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데, 이들 의견에 따르자면 칸트의 인간학은 철학적 중요성을 잃게 된다. 두 번째 입장은 칸트의 인간학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실천철학이자 ‘경험의 철학’으로 이해한다. 이에 따르면 칸트의 인간학은 칸트의 비판철학과 이론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함’이라는 계몽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철학이다.¹³⁾

칸트의 장애에 대한 언급이 단지 노년의 저작에 잠깐 출연한 것인지, 아니면 칸트 철학 전반에 걸쳐서 내재되어 있는 비장애중심적 사고가 발현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일은 본고에서 중요하다. 만일 전자로 결론이 난다면 칸트의 장애 언급은, ‘장애’에 관한 인식이 형성되기 이전이라는 상황 논리가 적용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배제 역시 우연적인 사건이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후자로 결론이 날 경우 칸트 철학은 물론 이에 영향을 받아 근래에까지 이르는 철학 전반에 대해 비장애중심주의적 관점에서 고찰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본고는 이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푸코는 《칸트의 인간학에 관하여》에서 칸트 철학의 흐름이 “1772년 이후부터 어떤 구체

13) 강영안(2014). 칸트의 물음: 인간은 무엇인가?. 철학논집, 38, 39-66.

적인 인간상이 존재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아마도 일련의 비판철학의 매우 깊숙한 층위에 존속”(푸코, 2012, p.24)했을 거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이후 계속된 칸트의 철학에서 “칸트의 인간상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으며, 마침내 큰 변화 없이 칸트가 최종적으로 출판한 책에 표현”되었을 거라는 의견과 함께 “비판기 이전의 저작들과의 비교 및《실용적 관점의 인간학》의 최종 판본과 동시대의 저작이거나 조금 앞선 저작들과의 비교”는 “인간학 강의의 시작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 전혀 변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요소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해 준다”(푸코, 2012, p.25)고 정리했다. 더 나아가 칸트의 인간학은 “자연 존재의 층위에서 그리고 동물적 규정들의 내용에서의” “인간에 대한 인식”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인식, 즉 “인간의 인식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다(푸코, 2012, p.141).¹⁴⁾ 후자의 측면에서 보자면 칸트의 인간학에서 인간은 인식의 대상이기 이전에 인식을 가능케 하는 토대이다. 칸트 역시도 ‘철학은 표상·개념·관념들에 대한 과학 또는 모든 과학들의 과학 또는 그와 비슷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과학, 인간의 표상·생각·행동에 대한 과학’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¹⁵⁾

칸트에 의하면 인식 과정에서 인간은 시공간 속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성’이라는 선형적 인식 형식의 주체적인 능력으로 개념을 구성한다. 이를 수단으로 세계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성의 한계까지 나아가서 이 세계의 주체로서 세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인식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에 더하여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이기도 하다. 칸트의 인간학에 대한 푸코의 비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이런 인식은 근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은 매 시대마다 다른 에피스테메에 의하여 다른 인간이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 푸코의 주장이다.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Balibar(2007)는 칸트의 감성과 이성을 갈등 관계로 본다. 인식의 질서 속에서 이 둘은 ‘상호보완성이나 조화 속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실천의 질서에서는 ‘양립 불가능한 동기들(Triebsfedern) 보여주기 때문’이다. 감성의 동기들은 “‘실용적’인 것으로, 각 개인에게 자식 자신의 행복에 대한 욕구, 자기 이익의 추구,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수단들의 모색을 표현”하는 반면 이성의 동기들은 “의무의 무일무이한 명령(impérar)으로 환원”(Balibar, 2007, p.142)된다.¹⁶⁾

인식의 주체인 인간에게 가능한 인식과 그 한계에 대한 인식, 인식의 인간적 토대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문제가 만들어진다. 칸트가 말한 선형적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부류의 인간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장애중심

14) Foucault, M(1961). 칸트의 인간학에 관하여(김광철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15) Kant(1798). 학부들의 다툼, 백종현 역, 아카넷

16) Balibar, É.(2007), 대중들의 공포(최원, 서관모 역). 서울:도서출판비 p142

주의’를 찾아볼 수 있다. 칸트 철학 초기 저작인 <두뇌의 질병들에 대한 시론>과 말기 저작인 《실용적 관점의 인간학》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정신장애인에 대한 층위 구분과 명명,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제한 명시, 감각에 층위를 매김으로써 특정 장애인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대상으로 규정 등의 서술에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와 차별이 담겨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장애중심주의는 칸트 철학의 전반에 걸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장애학의 관점에서 칸트 철학을 재독해하는 데 적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2. 생물학적 환원주의로서의 장애 분류

<두뇌의 질병들에 관한 시론>에서 칸트는 인식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뇌에 결함(Gebrechen)’, ‘머리가 마비된 백치(Blodsinnigkeit)’, ‘두뇌가 환희에 빠진 광기(Tollheit)’ 등에 명명을 시도한다. 이 명명법에서 칸트가 참고한 것은 당시 의사들이 쓰는 방법이었다. 칸트는 두뇌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무능력(Ohnmacht)인 경우와 전도(Verkehrtheit)인 경우로 나누는데, 보통 전자의 경우는 백치라는 이름으로, 후자의 경우는 정신이상(gestörte n Gemuts)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백치는 기억(Gedächtnis)과 이성(Vernunft)에서 대단히 무력하며, 일반적으로 감각작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치유할 수 없다. ‘우둔(Dummköpfigkeit)부터 바보(Narrheit)에 이르기까지 더 온건한 정도의 병’을 먼저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시민관계에서는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또한 이것들이 전자의 것들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백치는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조롱을 받지만 시민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즉 성원권에서는 배제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와 달리 정신이상자는 ‘일반적으로 연민을 자아내는 사람들’로, ‘당국의 예방적 조치’의 대상이자 처분의 대상이다. 칸트는 또한 정신이상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착란상태(Verrückung), 망상상태(Wahnsinn), 망단상태(Wahnwitz)가 그것이다.¹⁷⁾ ‘착란상태는 경험 개념들이 전도된 경우’이고, 망상상태는 ‘이런 경험을 통해 판단력이 무질서해진 경우’이며, 망단상태는 ‘더 보편적인 판단에 대해 이성이 전도된 경우’이다. 두뇌결함자의 치료 가능성에 대해 칸트는, ‘만약 정신이상인 두뇌의 무질서를 제거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소멸된 기관들에 새로운 생명을 붓는 것은 틀림없이 거의 불가능할 일’이라면서 백치를 ‘치료 불가능한 병’으로 보았다. 이어 치료가 불가능한 ‘불행한 자로 하여금 아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박약이 어떤 외관을 하고 있는지는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여기 오래 머물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설명을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한다.

17) 병명의 국역 표기는 고병권(2023)의 <두뇌의 질병들에 관한 시론(Versuch über die Krankheiten des Kopfes)> 미출판 번역본에 따른 것으로 이하 병명에도 적용함.

《실용적 관점의 인간학》에서는 감성과 지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추가된다. 두 관계에서의 위계는 <두뇌의 질병들에 관한 시론>에서도 감각을 ‘하위능력’으로 지성을 ‘상위 능력’으로 정한 바 있는데, 이 책에서는 지성에 대해 인간을 “지상의 어떤 생물보다 우위에 서게”하는 것으로 설명할 뿐 아니라, ‘지성’과 ‘감성’을 ‘지도자와 민중’의 관계로 설정한다. “감성은 평판이 나쁘다”면서 “감성은 표상력을 혼란스럽게 한다”, “시녀여야 함에도 여왕처럼 고집스럽고 통제하기 어렵다”, “기만적이어서 인간은 감성과 관련하여 충분히 경계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한다(VII, 143). 그렇다고 지성이 다 옳은 것은 아니어서 만일 지배자인 지성이 감성을 악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짚는다.

상위 인식 능력인 지성에 생긴 결함을 칸트는 크게 ‘마음의 박약’과 ‘마음의 병’ 두 가지로 구분한다. ‘마음의 박약’은 인식 능력 자체가 약하거나 부재한 경우이고, ‘마음의 병’은 인식 능력들이 통제되지 않거나 질서가 전도된 경우이다. 우울증(건강염려증)에 대해, ‘사람이 어떤 특정한 감각 인상에 주목하면 그것에 대한 감정이 커지는데, 그것이 지나쳐서 마음의 안정이 깨진 경우’로 보면서 ‘자신의 사고의 흐름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그 걱정을 떨쳐낼 수 없는 상태’임을 덧붙였다. ‘정신이상’은 사고가 자의적으로 흐르면서 나름의 규칙은 갖지만 경험 법칙과 어긋나는 경우이다. 감각표상과 관련된 정신이상은 ‘망언’이거나 ‘망상’으로, 판단력과 이성인 전도된 정신이상은 ‘망단’과 ‘망념’으로 구분했다.

이상 두 텍스트에 드러난 칸트의 정신장애 분류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 1〉 칸트의 정신장애 분류와 명명

구분	백치(Blodsinnigkeit)	정신이상(gestörten Gemuts)
개념	경멸받고 조롱받는 두뇌결함자	일반적으로 연민을 자아내는 정신이상자
원인	정신박약 / 마음의 박약	마음의 병
사회와의 관계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관계를 끊지 않는(nicht aufheben)사람들	당국의 예방적 조치의 대상이자 처분 대상인 사람들
특징	인식능력 자체가 약하거나 부재한 경우	인식능력이 통제되지 않거나 질서가 전도된 경우
발현양상	무능력(Ohnmacht)인 경우	전도(Verkehrtheit)인 경우
병명	-둔재(stumpfer Kopf): 추상화가 어려움 -천치(우둔, Dummheit): 기지와 판단력 없음 -단순(Einfalt): 지성으로 판단할 게 많지 않음 -산만(Zerstreuung): 주의가 분산되어 다른 표상으로 이탈	우울증 (건강염려증) ● 감각표상에 이상 -망언(Unsinnigkeit) -망상(Wahnsinn) ● 판단력과 이성에 이상 -망단(Wahnwitz) -망념(Aberwitz)
치유 가능 여부	치유 불가능	치유 어려움

칸트의 장애 분류는 오늘날 정신의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 DSM) 개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송지영(2011)의 연구에 의하면 유럽의 정신의학이 하나의 전문분야로 자리매김을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경으로, 20세기 초까지 신경증 환자들의 주된 치유법은 온천 요양이었다. 총 106가지의 정신장애 유형이 수록된 DSM-I에 대해 반정신의학자들의 저항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DSM-II가 발간되었지만, 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DSM이 신뢰도와 타당성에 대해 비판할 수밖에 없는 사례 중 하나는 ‘동성애’를 정신장애의 한 유형으로 본 점이다. 인권운동가들의 거센 반발로 동성애는 이후 DSM-III 목록에서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정신질환은 ‘전문가들이 합의한 여러 증상의 조합, 즉 DSM에 따라 진단된다’(조영탁·주연호, 2021)는 문제는 남아 있다. 병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증세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생물학적, 병리학적 질병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하는 행위에 대해 ‘반정신의학(anti-psychiatry)’이나 ‘비판정신의학(Critical Psychiatry)’을 지지하는 활동가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2012년 매드 프라이드 토론토(Mad Pride Toronto)는 참석이 어려운 참가자들에게 DSM을 찢거나, 훼손하거나, 편집하거나, 재작성하거나, DSM으로 종이반죽을 만들거나, 종이접기를 하거나, 종이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집트 정신과 의사인 Rashed(2023)는 ‘미쳤다는 것은 정체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광기에 대한 인정은 사회가 더 다양화하고 풍부해지는 방향으로 한발 내딛는 것’이라 하면서, 질병과 병리를 넘어 광기의 사회적 의미를 다양화함으로써, 일반적이지 않은 경험, 심리적·행동적 측면의 여러 차이들을 좀 더 폭넓게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Rashed(2023)는 매드 프라이드(Mad Pride) 운동과 매드포지티브(mad-positive) 운동이 광기를 질병으로 보는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광기가 ‘정체성’과 ‘문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정신질환에 대한 기존 관점의 핵심에 도전을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¹⁸⁾ 이러한 Rashed의 주장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정신질환의 한 예인 ‘조현병’ 당사자가 자신의 상태를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예측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볼 것은 광기에 대한 시대적 지역적 인식의 간극이다. 동성애를 광기로 보았던 일도 그렇거니와 1860년대를 살았던 엘리자베스 패커드라는 여성은 단지 남편의 종교적 관점을 거부하고 자유를 추구했다는 이유로 광인수용소에 감금되는 일이 있었다. 광기에 대한 인식은 분명 변화해 왔으며, 그 변화의 방향을 이끌어 온 것에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한몫했음을 인정한다

¹⁸⁾ Mohammed Abouelleil Rashed(2023). 미쳤다는 것은 정체성이 될 수 있을까? 광기와 인정에 대한 철학적 탐구(송승연, 유기훈 역) 서울: 오월의봄

면, 광기가 ‘정체성’과 ‘문화’로 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아예 묻어버리기보다는 일정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칸트는 정신장애를 분류한 목적에 대해 ‘인간의 인간다움이 어디서 어떻게 저하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다. 정신이상은 ‘본질적이고 치유가 불가능한 무질서’이기에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게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런 일에 애쓰는 것은 별 효용도 없다.’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체 자신의 지성 사용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데 이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학’은 “인간성이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장 낮게 실추된 상태에 일반적으로 약속해 볼 것을 요구한다”(VII, 214)는 것이 정신장애에 분류에 대한 칸트의 입장이다.

장애를 분류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장애에 대한 정의인데, 이는 분류 목적과도 관련이 있다. 장애 요인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 대안을 마련하는 태도와 입장이 정해지기 마련이다. 장애를 개인의 결핍으로 보고 장애인을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의료적 관점을 지양하고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장애의 원인을 사회적·문화적인 것으로 보고 거기서 대안을 찾기 위함이다. WHO에서 1994년에 제시한 국제장애분류모델(ICIDH, 1980)은 개인의 ‘질병(Disorder)’으로 인한 ‘손상(Impairment)’, 그로 인한 ‘능력제약(Disability)’과 “사회적 불리(Handicap)’를 일방향적인 인과관계로 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장애인이 갖는 불편함의 원인을 생물학적 손상으로 환원한다는 것은, 신체적 손상을 가진 개인이 사회적 제약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 조건에서의 사회화는 ‘손상’으로 인한 ‘억압’ 역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된다. 이후 2001년에 제시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에서 ‘장애’(disability)는 손상(impairment), 활동 제한(activity limitation), 참여 제약(participation restriction)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장애’에 대한 개념의 변화는 국제장애권리협약의 제정 과정에서도 잘 반영되었다. Lawson & Beckett(2021)는 국제장애권리협약의 제정 과정에서 ‘장애의 존재나 진단에 근거하여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모델이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의료 및 관련 전문가에게 장애인의 삶에 대한 통제권이 넘겨지는 것’을 우려한 UPIAS(분리에 반대하는 신체 장애인 연합, 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와 DPI(국제장애인연맹,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의 정치적 요구가 있었다.¹⁹⁾

¹⁹⁾ Anna Lawson & Angharad E. Beckett (2021) The social and human rights models of disability: towards a complementarity thesi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25:2, 348-379

생물학적 환원주의는 장애인이 받는 차별을 신체적인 ‘손상’에 원인을 두어 당연한 것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비장애중심주의적인 발상이다. 정은(2013)은 ‘생물학적 환원주의 시각에서 장애에 대한 개별적이고 병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장애·장애인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²⁰⁾ 같은 맥락에서 칸트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어떤 측면에 경도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칸트의 장애 분류의 목적을 다시 정리해 보면, 자신이 설명한 인식의 경로에 그 과정에서 어긋남이 있는 존재를 ‘정신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간다움이 어디서 어떻게 저하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3. 장애인의 성원권

시민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즉 성원권을 갖는 것이다. 각각의 개체가 일정한 기준으로 모여서 구성된 공동체의 구성원은 단일 개체가 아닌 바에야 다른 개체와 구분되는 정체성을 가지며 이는 차이로 드러난다. 이 차이에 우열을 매기거나 합리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일정 영역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차별’이자, ‘타자’의 위치로의 밀려남을 의미한다. 어떤 공동체에서 타자가 아닌 주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가 같은 물리적 정서적 공간에서 같은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일이자 의사소통 대상자로서의 인정을 의미한다. 차별이 작동하는 데에는 공동체 구성원 중 힘 있는 집단의 의식이 크게 작용하기 마련인데, 《차이의 정치와 정의》의 저자 Young(2017)의 지적처럼 우리 사회의 권력은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주체의 순수함과 품위에 대비하여, 공공연하게 특정 집단을 추하거나 퇴화한 몸으로 구성’해 왔다. 성원권에 대해 김현경(2015)은 《사람, 장소, 환대》에서 ‘상호작용 의례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받는 것’이라고 한 것은, 명시적인 법적 권리를 포함한 사회문화적 인식, 푸코식으로 말하자면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에 의해 작동하기도 하는 성원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Balibar(2017)는 칸트의 《법론》을 인용하면서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구별이 칸트에게는 ‘구성적’임을 말한다. 고용살이하는 자들, 미성년자들, 여자들, 타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자들 일반은 ‘시민적 인격성(bürgerliche Persönlichkeit)’을 결여하고 있으며, 그들의 존재란 부속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사이에 구분이 상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칸트의 맥락에서 장애인의 성원권은 인간이라는 종적 범주에서 1차 탈락하고,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사이에서 또한번 탈락한다.

20) 정은(2013). 장애아동과 교육. 한국에서 장애학하기, p365. 학지사

1) 미성숙한 존재와 계몽

칸트가 말하는 인간의 ‘성장’이란 야만 상태로 태어나서 도덕적 상태에 이르는 과정으로, 시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를 말한다.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대해 칸트는《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에서 ‘자연이 인간에게 강요한 인류의 가장 큰 문제’로 서술한다. 인간이 가진 이성인 ‘개인이 아니라 종 안에서만 완전히 전개’되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지닌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과 의도를 자연 본능을 훨씬 넘어서까지 확장하는 능력이며 그 한계는 없다’고 했다. ‘인구의 지상 과제인 정당한 시민적 체제를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자연적 자유상태에서는 서로 오랫동안 같이 지낼 수 없게 하는 경향을 지닌 인간’이 필요에 의해 ‘외적인 법률 아래에 있는 자유가 불가항력적인 힘과 가능한 한 최대한 결합한 사회’로 들어가는 것이다.

마치 숲에 있는 나무들이 다른 나무에서 공기와 빛을 빼앗으려 하고 이 둘을 자기 위에서 찾으려 서로 필요로 함으로써 아름답게 똑바로 자라게 된 것처럼 말이다. 반면에 자유롭게 서로 분리되어 가지를 마음대로 뻗고 자라는 나무들은 기형으로 성장하거나 비틀리고 굽은 형태로 성장하게 된다. ... 굽은 나무에서는 완전히 곧은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다. (Ⅷ, 22)

자연적(야만적) 인간이 사회화 과정에서 의존하는 것은 공동체 내의 관계이며, 이 때 주체에게 내재되어야 하는 요건은 인간의 종적 특징인 ‘이성’이다. 칸트는 〈두뇌의 질병들에 관한 시론〉에서 정신장애인을 ‘당국의 예방적 조치의 대상이자 처분 대상인 사람들’로 설명한다. 그래야 하는 이유에는 이들이 자칫 공동체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있다. 그래서 ‘다른 정화의 길을 정해주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과 함께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이 병을 철저히 하고도 조용하게 몰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격리’를 제안한다.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에서 ‘마음의 박약’을 다루던 칸트는 이어 미성숙한 존재자로서 아이와 여성의 권리 제한을 다룬다. 마음의 박약이 없다 하더라도 지성의 실행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과 연결된다. 칸트가 장애인을 보는 일차적인 시각은 ‘미성숙자’이다, 칸트가 말하는 ‘미성숙’(Unreife)이란 ‘다른 모든 점에서는 건전한 인간이 시민적 업무에 대한 자기 지성의 고유한 사용에서 (자연적으로 혹은 법률적으로) 무능력한 것’을 가리킨다. 미성숙은 ‘자연적 미성숙’과 ‘시민적 미성숙’으로 분류되는데, 자연적 미성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이 가능해지는 경우로 어린아이를 예로 든다. 이와 달리 시민적 미성숙은 시간과 관계없이 성숙해지지 않는 것으로 여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신장애인

에 대해서는 영원히 성숙해지지 않는 시민적 미성숙에 자연적 미성숙 존재로 규정한 점이다. 미성숙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낭비를 일삼는 사람이 법률적으로 성년이 된 뒤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자 할 때, 어린아이나 저능아처럼 보일 만한 지성의 박약이 입증되면 그는 자연적 미성숙자에서 사회적 미성숙자가 되어 재산을 관리할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런 미성숙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칸트가 말하는 것이 ‘계몽’이다. 칸트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답변〉(1784)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계몽이란 인간이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미성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숙함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 미성숙함이 지성의 결여에서 기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는 결단과 용기의 결여에서 기인하는 경우,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VIII, 35)

‘미성숙’이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상태이다. 사람들이 미성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 칸트는 ‘게으름’과 ‘나약함’을 들었다. ‘각각의 개인이 거의 자기 본성이 되다시피한 미성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로 이 상태에 있다 보면 누군가가 미성숙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해도 그는 ‘아주 작은 도량조차 그저 불안해하며 건너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자기 정신을 스스로 연마하여 미성숙함에서 벗어나고도 확고한 길을 걷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단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칸트는 대중이 스스로를 계몽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계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자유뿐’이라고 강조한다. ‘더 정확히 말해서 자유라고 일컬을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무해한 자유, 즉 모든 일에서 자기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자유’라고 부연한다. 이성의 공적 사용이란 ‘어떤 사람이 독서계의 전체 대중 앞에서 학자로서 자기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성의 사적 사용이란 ‘그가 맡게 된 특정한 시민적 지위나 직무에서 허용되는 이성 사용’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위계에 복종하면서 산다면 이성의 사적 사용이고, 이에 대해 잘 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뛰어넘으려 할 때 사용되는 것이 공적 사용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교사의 말에 잘 따르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이성의 사적 사용이라면, 교사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한다면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된다. 이렇듯 칸트의 ‘계몽’에는 세계 인류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자 하는 목적성이 있다. 공적인 이성의 사용을 통하여 인류애를 위한 판단을 하고, 그 판단대로 행동하는 계몽된 인간들이 나타나면, 인간 세계 안에서 도덕 법칙을 지키면서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모습을 실행하게 되는 그 사회가 되

고, 보편적인 이성에 따라 움직여지는 올바른 사회가 나타날 거라는 게 칸트의 계몽이 가지는 합목적성이다.

푸코는 이 계몽을 위한 목적성을 거부하는 반면, 특정 시대의 한계를 비판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점에서 칸트의 계몽은 높이 평가한다. 각 시대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비판의 이성으로서, 정상과 비정상, 이성과 광기, 지식과 권력,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비판적 이성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자연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미성숙’으로 남아있는 장애인은, 미성숙을 벗어날 기회도 방법도 없이 계몽의 대상에서 일찌감치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2) 의사소통의 대상

칸트는 〈두뇌의 질병들에 관한 시론〉 초입에서 두뇌에 결함을 가진 우둔한 자와 사기꾼을 대화의 상대자로 비교하면서, ‘우둔한 자와 사기꾼을 놓고 말하면 누구나 아무런 망설임 없이 후자를 선호한다고 밝힐 것’이라도 단언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기예에 달려 있는 조건에서는 영리함 없이는 지낼 수 없지만, 정직은 그러한 관계에서는 방해만 될 뿐’이라고 설명한다. 지적장애인의 솔직한 대화가 대화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혜롭고 예의 바른 시민들, 다시 말해 그렇게 보이는 데 노련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음을 자부한다. 심지어 “정직하지만 우둔하다는 것은 가장 비난받아 마땅한 잘못된 판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직함(원칙에서 비롯한 의무 준수)이란 실천이성”(Ⅶ, 204-205)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우둔한 자’는 ‘실천이성’이 없어서 ‘정직’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점으로 판단할 때 칸트는 적어도 지적장애인을 의미있는 대화 상대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로 여기는 것은 오늘날에도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러한 태도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불인정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특히 탈시설, 자립과 관련되어 종종 쟁점이 된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립 생활이 어려울 거라는 단정은 부당하며 이는 전적으로 비장애중심주의적인 사고이다. 김도현(2019)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정’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어떤 오해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자기결정능력’과 ‘자기결정권을 구분’한다. 여기서 능력이란, ‘그런 가능성이 특정한 조건과 관계 속에서 현상적으로 표출되는 것’라고 한정하면서 ‘자기결정권이 낮다고 해서 자기결정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과 소통에 걸맞는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임지희와 심원식(2018)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치료, 교육, 직업과

같은 기존의 재활 패러다임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개별적 욕구를 기반으로 당사자가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만일 칸트 식으로만 본다면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의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따라 ‘사교’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칸트는《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에서 본격적으로 ‘사교’를 다룬다. “진정한 인간성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풍족함은 좋은 사교모임에서 좋은 식사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자리는 단지 끼니를 위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스스로는 즐기려는 의도를 가진” 사교적 즐거움을 위한 모임으로 “(미감적으로 하나가 된)순수한 취미생활자들의 회식 모임”(VII, 278)이다. 규모는 대화가 중간에 끊겨버리거나 작은 집단으로 나눌 위험이 없는 정도로 주인을 제외하고 3명에서 9명 정도가 적당하다. 특히 ‘철학을 논하는 학자’에게는 이런 식사 모임이 좋다고 한다. 요즘 말하는 이른바 ‘혼밥’은 칸트에게 “사상들을 생겨나게 하는 활동”(VII, 280)이 아니기 때문에 소모적인 일이 된다. 칸트의 ‘사교적 담화’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마음은 사유의 전달을 위해 어떤 질서를 요구”하는데 “담화의 착수는 ‘가깝고 현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VII, 177)는 등의 담화 규칙들을 칸트는 ‘세련된 인간성의 법칙들’로서 덕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책략으로 본다. 칸트가 말하는 ‘친교의 자리’에는 일정 부류의 사람이 배제되어 있다. 칸트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사교의 장에 참여가 어려운 사람이다. 사교나 공론의 장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판단을 검토하고 교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 “교제 수단을 상실한” 청각장애인들은 “사교의 장 안에서 짜증내고 의심스러워하고 불만스러워 한다”(VII, 160). “표정은 보지만 알아들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칸트는 음성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은 “사교의 장 한가운데서 스스로 고독의 별을 받는다”(VII, 160)고까지 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칸트에게는 이 사교성이 지성과 함께 ‘인간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이다. 《판단력비판》에서는 ‘인간성은 한편으로 보편적 참여의 감정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진솔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교성에 의해 인간성은 동물의 제한성과 구별된다’고 하였다.

칸트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데는 ‘감각’에 대한 그의 견해가 한몫한다. “어떤 기관 감각 능력이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가? 그리고 어떤 감각 능력이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가?”(VII, 158)라는 질문을 통해 감각기관에 충위를 논한다. 이어 “어떤 감각 능력의 결함 혹은 상실이 더 심각한가?”(VII, 159)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으로 청각 상실이 가장 심각한 결함이라고 답한다. 그 주요한 이유는 사교 자리에 함께하는 데의 어려움이다. 청각장애인이 음성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칸트에게는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칸트가 말하는 청각 능력은 “오로지 간접적 지각에 의한, 지각에 대한 감각 능력 중 하나”(VII, 155)이다. 사람들은 발성 기관인 입으로

“소리를 토박토박 발음하고, 그 소리가 지성에 의해 법칙대로 결합되어 하나의 언어를 이루어낼 때, 다른 사람이 이들과 가장 쉽고 완벽하게 생각과 감각을 공유할 수 있다.”(Ⅶ, 155) 음성은 몸짓과 달리 직접적으로 대상을 표상하지 않기에 “개념들을 표시하는 데 가장 적합한 수단”(Ⅶ, 155)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선천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말을 못 하는, 언어 없는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고, 이성의 유사물 이상의 어떤 것에도 다다를 수 없다.”(Ⅶ, 159) 음성언어를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생각하는 한 칸트에게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데카르트는 다르게 말한다.

상이한 말들을 동시에 배치하고, 그 말들로 하나의 이야기를 엮어서 자기 생각들을 이해시키지 못할 정도로 명칭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심지어 미친 이들(*les insensés*)까지 포함하더라도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그것을 비슷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고 행복하게 태어난 다른 동물들은 전혀 없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이는 그것들의 기관들의 결핍(*faute*)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까치와 앵무새가 우리처럼 말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즉 말하는 바를 사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면서 말할 수는 없는 반면, 청각장애인이거나 언어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데 쓰이는 기관들이 짐승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결여된(*privé*) 인간들은 평소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말을 배울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해시킬 어떤 기호들을 스스로 고안해 내곤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기 때문이다. (Descartes, 〈방법서설〉 5부 p.56-58)

의사소통 능력에 관하여 칸트와 데카르트가 다르게 말하는 것은 ‘이성’에 대한 개념의 차이이다. 칸트는 청각장애인을 ‘이성의 유사물 이상의 어떤 것에도 다다를 수 없는’ 존재로 본 반면, 데카르트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성은 아주 조금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데카르트는 《방법서설》 첫문장에서 ‘양식(*bon sens*)²¹⁾은 세상에서 가장 잘 분배되어있는 것’이라고 한다. ‘저마다 양식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다른 모든 것에 만족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조차도 그것만큼은 자신들이 가장 가진 것 이상의 이상을 욕망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것이 본래 사람들이 양식 혹은 이성이라고 명명하는 것인바,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동등’함을 말한다.

21) 데카르트에게 ‘*bon sens*’는 이성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방법서설》은 대중에게 널리 읽힐 목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당시에 좀 더 통용되는 말인 ‘*bon sens*’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개 장애 유형 중 6개 유형(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은 언어장애를 수반한다. 그러나 언어장애가 의사소통의 장애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부당한 일이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손상’ 때문이 아니라 적절한 소통 기제를 갖추지 못한 사회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의사소통의 방법을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 차원에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자나 수어,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등은 그런 의미에서 더 정교하게 개발되어 필요한 장애인에게 공급되어야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수어’를 ‘한국어와는 문법 체계가 다른, 대한민국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규정하고 있다. 칸트가 당시에 수어가 쓰였다는 기록²²⁾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음성언어만을 의미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본 것은 청각장애인을 ‘의미 있는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 비장애인이 쓰는 언어만을 정상적이고 의미 있는 소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 따라서 장애인의 소통 수단은 ‘자신의 입술, 혀, 그리고 턱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비장애인중심주의가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IV. 결론

칸트는 인간의 ‘성장’을 야만 상태로 태어나서 도덕적 상태에 이르는 ‘사회화’로 보았다. 이렇게 칸트 식으로 장애를 본다면 장애인은 사회화가 되어도 문제고 되지 않아도 문제다. 비장애중심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사회화’가 된다는 것은 장애로 인한 억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반면 사회화가 되지 않는다면 사회화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인간으로서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칸트의 인간학은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과 ‘실천이성 비판’을 거쳐 ‘판단력 비판’에 이르기까지의 주체 철학을 종합적으로 아우른, 주체와 세계화의 관계, 세계 속에 귀속되어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칸트는 주체가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인간의 인식 내부에 선형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판단을 내리고 지식을 형성하고 인식을 획득하기 때문에 칸트에게 ‘이성’은 다른 종과의 구분이자 인간이 인간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이와 연관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칸트가 정신장애인을 이성이 결핍된 존재로 기술함으로써 난외(magin

²²⁾ Henri-Jacques. Stiker(2021).《장애: 약체들과 사회들》(오영민 역)에 의하면 유럽 청각장애인들은 수어에 기반한 모임 등의 고유 문화를 100년 가까이 발전시켜왔으나, 밀라노 회의(1880년)에서 청각장애인 교육과정에서 수어 사용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수어가 억압의 대상이 되었다.

s)의 영역으로 밀어낸다는 점이다. 칸트 철학 초기 저작인 <두뇌의 질병들에 대한 시론> 과 말기 저작인 《실용적 관점의 인간학》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정신장애인에 대한 층위 구분과 명명,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제한 명시, 감각에 층위를 매김으로써 특정 장애인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에 관한 서술에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와 차별이 담겨 있다.

칸트의 이러한 인간학을 비판한 푸코는, ‘나’라는 주체로서의 존재는 어떤 행위와 행위의 조건을 형성하는 사회적 힘에 의하여 각기 그때마다 새롭게 형성되고 해석된다고 보았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외부적 조건에 의하여 계속해서 새롭게 형성되어 간다는 점에서 동일성으로서의 ‘나’는 없다는 것이 푸코의 주장이다. 그 시대의 담론이 만들어낸 인간학은 푸코가 《말과 사물》마지막 문장에서 ‘인간은 바닥과 모래사장에 그려놓은 얼굴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 했듯이 그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르게 통용된다. 푸코 말이 맞다면 오래도록 우리 몸에 내재되어 마땅히 그런 것처럼 작동해온 ‘비장애중심주의’도 해체 가능한 것이 된다. 인종차별, 성차별이 그 차별을 드러내는 어떤 지점에서 저항에 흔들렸듯이 이제 비장애중심주의도 그 모습을 드러내어 비판받음으로써 그 세력이 약화되고 결국에는 종언을 선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코가 그의 연구 과정에서 칸트를 높이 평가했던 부분은 ‘계몽’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성’이 가지는 ‘비판적 기능’이다. 이성의 비판적 기능이 새로운 에피스테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 푸코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비장애중심주의가 해체되고 ‘장애’가 단지 차이로, 더 나아가 다양성의 가치로 자리매김하며 인식될 에피스테메가 우리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애’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과 다른 시기에 씌어진 텍스트에 드러난 비장애중심주의를 찾아서 분석하고 이를 오늘날에도 만연한 비장애중심주의와 연결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일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사상의 흐름 속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의식을 확인함으로써 그 변화 가능성의 물꼬를 트는 일이기도 하다. 오늘, 이 시대에, ‘비장애중심주의’라는 말이 생경하다면 그것은 장애인의 억압과 차별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장애학은 ‘장애’ 자체보다는 장애를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을 탐구한다. 이런 점에서 ‘비장애중심주의’에 대한 연구는 정치·철학·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제적으로 더 조밀하고도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철학 분야만 하더라도 이 글에서 언급된 ‘칸트의 인간학’이 어떤 줄기를 타고 어떻게 발전하고 갈라져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그리하여 그 안에 ‘비장애중심주의’는 어떻게 변화하며 이동하여 오늘에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한 연구에 이 글이 작은 시작으로 작용한다면 의미 있고 유용한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안(2014). 칸트의 물음: ‘인간은 무엇인가?’. 철학논집, 38, 39-66.
- 고병권(2023). 칸트의 인간학과 타자로서 장애인. 수유너머 인사업 강의를자료.
- 권오상(2013) 칸트의 인간학적 사유의 형성과정과 그 철학적 의미. 철학논집, 34, 131-153.
- 권오상(2015). 칸트의 정신병리론과 철학상담의 가능성 모색. 인문연구, 74, 1-28.
- 김수배(2018). 철학실천적 관점에서 본 칸트 철학. 철학논집, 54, 141-167.
- 박정수(2020). ‘장판’에서 푸코 읽기-장애의 교차로에서 푸코를 만나다. 파주:오월의봄
- 배진영(2023). 정신적 고통을 분류하기: 칸트부터 DSM-5까지
- 송지영(2011). 정신장애 진단 분류체계의 변천, 정신병리학, 20(1), 3-22.
- 윤영광(2020). 칸트의 계몽과 비판에 대한 푸코의 재해석. 인문학연구, 59, 607-637.
- 조성혜(2022), 발달장애인 탈시설화의 문제점. 노동법논총, 55, 479-525.
- 조영탁, 주연호(2021).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 조현병 진단 개념의 변천: 1980년에
서 2013년까지.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60(4),
241-252.
- 한현민(2022). 한국특수교육법의 감각장애와 신체장애 용어와 정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특수교
육논총, 38(2), 99-137.
- 홍우람(2021). 인식론적 관점에서 본 칸트의 인간학.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30,
121-181.
- Anna Lawson & Angharad E. Beckett (2021) The social and human rights models of
disability: towards a complementarity thesi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25:2, 348-379.
- Barbara Arneil, Nancy J. Hirschmann(2016). 장애의 정치학을 위하여(김도현 역). 서울: 후마
니타스.
- Campbell, F. K. (2009). Contours of Ableism: Territories, Objects, Disability and
Desire. London: Palgrave Macmillan.
- Balibar, É.(2007). 대중들의 공포(최원, 서관모 역). 서울:도서출판비.
- Balibar, É.(2017). Citizen Subject, Fordham University Press New York.

- Frierson, P. (2009a). Kant on mental disorder. Part 1: An overview. *History of Psychiatry*, 20(3), 267-289.
- Frierson, P. (2009b). Kant on mental disorder. Part 2: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Kant's account. *History of Psychiatry*, 20(3), 290-310.
- Kant, I(1754). *Versuch über die Krankheiten des Kopfes*
 _____ (1781). *순수이성비판*(백종현 역), 파주:아카넷.
 _____ (1784). *계몽이란 무엇인가*(임홍배 역). 서울:길.
 _____ (1784).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김미영 역). 파주:한길사.
 _____ (1784).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이한구 역). *칸트의 역사철학*, 서울: 서광사, p.199
 _____ (1784~1794). *비판기 저작1*(김미영 · 홍우람 · 오은택 · 이남원 · 정성관 · 배정호 역). 파주: 한길사.
 _____ (1795~1804). *비판기 저작2*(김상본, 이남원, 김상현 역) 파주: 한길사.
 _____ (1798).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홍우람, 이진오 역) 서울:한길사.
 _____ (1798).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백종현 역) 서울: 아카넷.
 _____ (1798). *학부들의 다툼*, 백종현 역, 아카넷.
- Kim E. Nielsen(2012). *장애의 역사*(김승섭 역). 서울:동아시아
- Kirchmann, J. H.(1869), *Erläuterungen zu Kant's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Berlin, Heimann
- Licia Carlson(2021). *Defining the Boundaries of Disability*, Routledge
- Pinheiro, L. G.(2013). *비장애인중심주의와 계약*
- Marie Sépulchre(2021). *Disability and Citizenship Studies*, Routledge
- Foucault, M(1961). *칸트의 인간학에 관하여*(김광철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_____ (1966). *말과 사물*(이규현 역). 서울:민음사
 _____ (1997). *What is Enlightenment? Ethics: Subjectivity and Truth*. New York : The New Press
- McCarthy T(2010), *Race, Empire, and The Idea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hammed Abouelleil Rashed(2019). 미쳤다는 것은 정체성이 될 수 있을까? 광기와 인정에 대한 철학적 탐구(송승연, 유기훈 역). 서울: 오월의봄.
- Nancy J. Hirschmann & Michelle R. Nario-Redmond(2019), Ableism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Disability Prejudice, Wiley-Blackwell
- Sandel, M, J(2020). 공정하다는 착각(함규진 역). 서울:와이즈베리
- Shelley Tremain(2020). 푸코와 장애의 통치(박정수, 임송이 역). 서울:그린비
- Shakespeare, T(2006).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in Lennard J. Davis,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 2nd ed. NY : Taylor & Francis Group, LLC
- Siebers, T(2021) The universal view of disability and its danger to the civil rights model 37, in Defining the boundaries of disability
- Sunauro Taylor(2017). 짐을 끄는 짐승들(이마즈 유리, 장한길 역). 서울: 오월의 봄
- Susan Baglieri & Priya Lalvani(2020). 비장애중심주의를 넘어(박승희, 이효정, 한경인, 이성아, 양현경 역). 서울: 피치마켓
- Young, I. M.(2017) 차이의 정치와 정의(김도균, 조국 역) 모티브북

원고접수 : 2023. 9. 8.	수정원고접수 : 2023. 10. 30.	게재확정 : 2023. 11. 29.
--------------------	------------------------	----------------------

Abstract

Ableism in Kant's Anthropology

KwangJoo Han*

Analysing the elements of ableism in Kant's philosophy texts is a radical work that searches the conception of ableism in our society and engage in a discourse of the disablement movement. In Kant's philosophy, the question 'what is the human' confirms that it was the conclusion of his philosophy, considering the early stages of the discussions and the subsequent processes, even though it was the Kant's final diplomatic inquiry. Kant placed the certain humankind who has the deficiency of rationality, the transcendental element of cognition, into the realm of margins. Kant's writing, involving the classification, naming, notification of restriction of right as social member, and defining particular disabilities as incommunicable objects by classifying the sense, lead to the consequence of ableism. The article finds the origins of the power to clarify the reason of the elimination of people who have ablement, which could be considered reasonable or casual matters, seek to deconstruct ableism, by achieving of Descartes, who held a different perspective on disability, and Foucault, who criticized Kant. Foucault was the one who observed that the power is inherent in Kant's philosophical conception.

Keywords : ableism, Kant, Anthropology, discrimination, immaturity, enlighten

* Doctoral Student, Daegu University

